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삼성전자...올해 '영업이익 50조' 전망도

지난해 연간 매출 236.26조·영업익 35.85조 '선방'

올해 메모리 슈퍼사이클, 파운드리 사업 성장할 듯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인 年영업익 50조대 전망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대호황)이 예고되며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호황이었던 2017년(53조 6500억원), 2018년(58조 8900억원) 이후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 전망까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년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은 236조 2600억원, 영업이익은 35조 95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230조 4000억원) 대비

2.5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전년(27조 7700억원) 대비 29.46%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61조원, 영업이익 9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27.13%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7%, 영업이익은 25.7% 증가했다.

2020년 호실적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특수 등으로 수익성이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가량 늘어난 약 19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사업부가 낸 셈이다.

코로나19 펜트업(pent up·억눌린) 수요와 '집콕' 수요 증가로 가전 사업이 선방한 점도 호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제품과 TV 판매가 늘며 지난해 소비자가전(CE) 사업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가량 늘어난 3조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디스플레이(DP) 사업도 지난해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단가 상승 덕에 전년 대비 46% 가까이 늘어난 2조 2000억원 안팎의 연간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 기대감에...연간 영업이익 50조 돌파 전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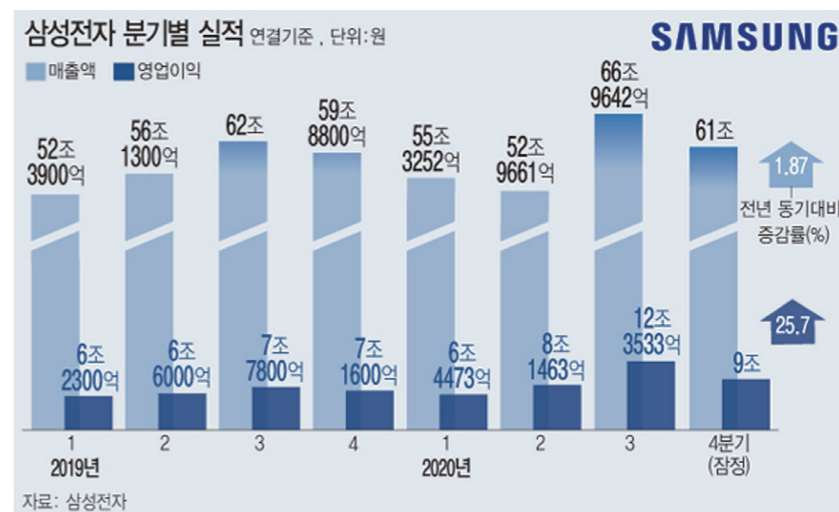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50조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 2017~2018년 호실적을 이끈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는 올해 1분기 D램 고가격이 전분기 대비 5~10% 증가할 것으로 봤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의 성장 가능성도 실적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년에 걸친 메모리 반도체 투자의 부진과 반도체 업체들의 낮은 재고 수준은 2021년 D램, 낸드 공급의 개선을 이끌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문의 이익 안정과 IM 부문의 개선에 따라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2분기부터는 반도체 부문의 출하량 증가와 ASP 상승에 따라 본격 개선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반도체 내 파운드리 부문 성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2021년 비메모리 관련 영업이익이 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이 공급 부족 상황"이라며 "10nm 이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포함 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46조원이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이익이 5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은 2021년 3분기부터 반도체 부문의 실적 대폭 증가는 따라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기존 47조 7000억원에서 49조 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갤럭시S21 조기 출격과 D램 가격 상승에 힘입어 65조 7000억원과 11조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연간 영업이익은 51조원으로 예상했다.

김민정기자



KT '기가지니 테이블 TV 2' 출시 "커진 화면으로 어디서나 AI TV를 즐기세요~" KT(대표이사 구현모, www.kt.com)가 모던한 디자인에 이동성을 더한 인공지능(AI) TV '기가지니 테이블 TV 2'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기가지니 테이블 TV 2는 이전 제품에 비해 화면이 약 29cm(11.6인치)에서 34cm(13.3인치)로 커졌다. 일반 TV와 연결해 대화면으로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전 모델과 달리 배터리를 내장했다.

1월 국산·수입 세단 중고가 시세 하락폭 커...“구매 적기”

엔카닷컴, 새해 첫 중고차 시세 발표...그랜저·A4·5시리즈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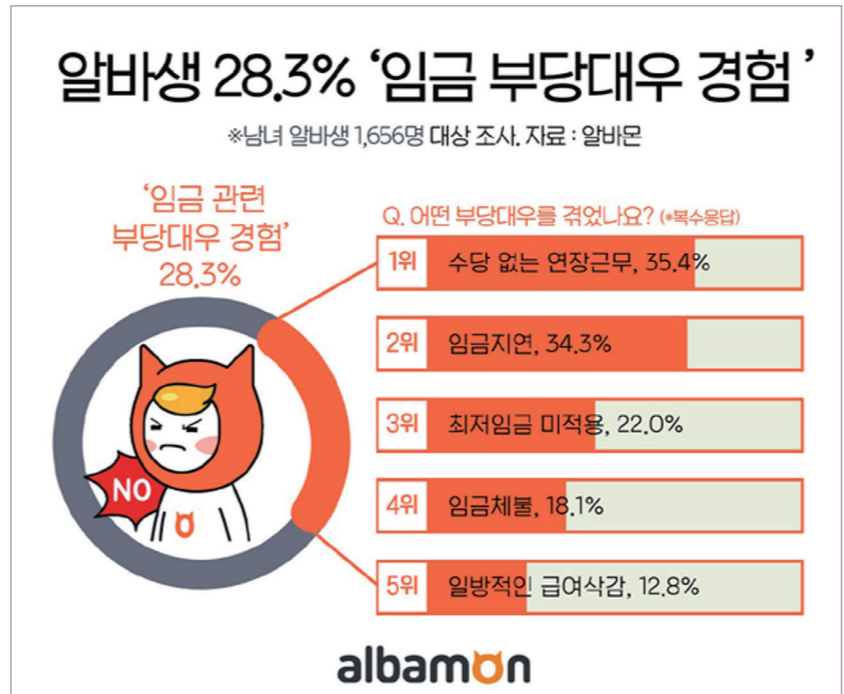
1월 국산·수입 세단의 가격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엔카닷컴이 9일 발표한 1월 중고차 시세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비수기가 지속되며 국산, 수입차 전반적으로 약 1%대의 중고차 시세 하락폭을 나타냈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선호 트렌드가 지속되고 다양한 SUV 신모델들의 출시가 예고됨에 따라 세단 모델의 시세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시세 하락은 해가 바뀌면 전년도 말 구매를 미루던 소비자들의 구매 대기 수요가 증가하며 1월 시세가 상승했던 기존 경향과 다르다는 것이 엔카닷컴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중고차 시세는 현대·기아·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BMW·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18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다. 국산차 시세는 전월 대비 1.65% 하락한 가운데 10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인기 세단의 시세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가 기준으로는 현대차 그랜저 IG 가솔린 모델이 5.01%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최대가 기준으로는 쏘나타 뉴 라이즈 6.96%, 아반떼 AD가 5.92%로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제네시스 G70은 작년 말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에도 보험세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국산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기간 없이 바로 구매 가능한 인기 차종으로, 신차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0.45% 소폭 하락했다. 수입차 시세도 전월 대비 1.64%로 하락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세단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아우디 A4는 3.8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는 3.36%, BMW 5시리즈는 3.11% 하락했다. 수입 세단 모델 시세가 하락한 반면 미니 쿠퍼는 1.64%, 쉐보레 더 뉴 스파크는 1.49% 시세가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시세가 떨어진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로 최소가 기준 7.94% 하락했다. 박홍규 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장은 “올해 1월은 작년 연말 중고차 시장 비수기 상황이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한 가운데 국산 및 수입 브랜드 인기 세단 모델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며 “2021년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카닷컴은 연간 약 100만대의 중고차 차량이 등록되고 온라인과 모바일 방문자가 수가 매일 75만 명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거래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중고차 시장 분석, 소비자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생활을 혁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엔카진단’, ‘엔카보증’, ‘엔카플러스비즈’, ‘엔카 비교견적’ 등의 다양한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알바생 28.3% 임금 부당대우 경험 '연장근무 등 수당 미지급' 가장 많아

2018년 38.6% 비해 낮아져...아르바이트 임금 여건 호전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 1위는 '수당 없는 연장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71.7%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무려 10.3%p 낮아져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

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2.0%)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8.1%) △지각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11.7%)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4%)'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본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4%)'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로 높았다. '문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2.8%)', '그런 게 있을 줄 몰라서(9.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는 58.0%가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김민희기자

'K-떡'도 잘나가네...쌀가공품 수출액 역대 최고실적

떡·가공밥류가 견인...전체 수출액 전년 대비 27% '경증'

지난해 떡볶이 등 국산 쌀가공품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쌀가공품 수출액(잠정)은 역대 최고치인 1억37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9%나 증가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와 즉석밥 등 가공밥류가 이 같은 성장세를 이끌었다. 떡류는 53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7%나 성장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가공밥류는 4590만 달러로 32.2% 증가했다.

가공밥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 5530만 달러, 일본 1700만 달러, 베트남 1270만

달러, 중국 89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상승해 전체 쌀가공품 수출액의 40.2%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세에 있는 쌀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관측·홍보 등 다각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